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신청하세요”

화순군은 고령인 등 농업활동이 어려운 벼 재배농가에 농약방제 일손도우미를 지원한다.

최근 농촌사회는 고령화 및 부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병해충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순군에서는 농업활동이 곤란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7백만원 등을 들여 벼농사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농약방제 작업을 대신하여 주는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375ha의 벼 재배면적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7~9월 사이에 2회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해 준다. 사업대상 농가는 고령인(65세이상), 장애인, 여성 혼자서 농업활동을 하는 벼 일반재배 농가이며,

화순군, 농업활동 어려운 벼 재배농가 대상 총 375ha 재배면적 병해충 방제작업 지원



5월 3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약제는 사업대상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활동이 어려운 농가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를 줄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약의 방제하는 일손도우미에게는 일정기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며, “노동력과 비용문제로 병해충 방제 등 농업활동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춤의 향연 전국댄스스포츠 대회 개최

광양시는 오는 13일 광양을 실내체육관에서 2018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총 3개 부문 60종목으로 진행되며, 전문 프로선수들을 비롯한 800여 명의 전국 댄스동호인들이 참가해 끼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각 부문별로는 댄스 룸바, 자이브, 파소도블레 등 ‘리턴댄스’ 20종목, 왈츠, 탭, 포스트룩, 퀵스텝 등 ‘모던댄스’ 39종목, 8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체경기인 ‘포메이션’ 등 총 60종목으로 이뤄졌다.

경기는 오전에는 생활체육 오후에는 프로선수들이 참여하는 전문체육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회 개최식은 행사당일 오후 1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시는 대회장소 사전 점검과 의료인력 배치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공홍보물 배부를 통해 시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이번 대회가 전국의 아마추어와 프로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되는 멋진 하모니 연출로 댄스스포츠를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댄스동호인들의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해룡면~도사동간 동천1교 개통

동천 홍수 안전과 시민 통행 편의 제공

순천시는 도사동과 해룡면을 연결하는 동천 횡단 교량인 동천1교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1일 개통한다.

동천1교는 그 동안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았으나, 기존 교량의 노후로 인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홍수시 동천 흐름을 저해하는 등 재난 위험요인이었다.

또한 교량 폭이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 및 화물차량은 통행이 제한

필요로써 먼 거리를 우회하여 다녀야 하는 등 교량의 개설지는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항이었다.

이에 순천시는 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동천 교량의 조성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고, 국비 포함 57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150m, 폭 10.5m로 설치하여 개통하게 되었다.

시는 그동안 동천 유수 장애 요인이었던 교량 기능을 당초 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기동간 거리도 당

초 15m에서 30m로 늘려 우기시 동천의 재난 위험을 줄였다. 동시에 3등급 교량을 1등급으로 높여 그동안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보도를 신규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천 하류부의 좌우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결통로를 확보하였고, 야간 안전을 위해 가로등도 신규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천교와 흥내교 간 연결도로 아직 확장되지 않아 8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은 단분간 제한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상자모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일손경감

내달 중순까지 농가 신청 전량 250,195상자 공급



도록 벼 육묘장에서 생산된 건설한 상자모를 공급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올해도 39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신청한 세일미, 영호진미 등 2개 품종 250,195상자 전량을 공급한다.

그동안 시는 모 이앙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상자모 공급을 희망 시기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됨에 따라 육묘업자와 벼 재배농가 간 원만한 이앙시기를 조정했다.

우선, 벼 조기재배 단지를 우선으로 지난 4월 계획량 대비 8% 정도인 15,000상자 공급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상자모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해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인 1,331ha의 80%인 1,068ha에서 벼 상자모를 통해 모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벼 상자모 공급을 통해 벼 재배 노동력의 20%를 절감할 수 있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지방세외수입분야 평가 ‘최우수상’

전남도 22개 시·군 대상 평가 실시

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해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징수율’에 대한 평가를 매겼다.

나주시는 이월체납액 징수액 209억 원을 징수,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지난 2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시는 지난 해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징수기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를 조성했다.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및 체납처량 변호관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과태료는 사전 통지 시, 20%감경부과 하고 있으니 이 기간 내 납부해 관련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시, 지방세외수입분야 평가 ‘최우수상’

전남도 22개 시·군 대상 평가 실시

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해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징수율’에 대한 평가를 매겼다.

나주시는 이월체납액 징수액 209억 원을 징수,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지난 2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시는 지난 해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징수기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를 조성했다.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및 체납처량 변호관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과태료는 사전 통지 시, 20%감경부과 하고 있으니 이 기간 내 납부해 관련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